

# 환율 1350원~1400원대 전망...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

## 원·달러 환율

해리스, 경제정책 유지... 국제 안정 트럼프, 고관세·국채 발행량 증가 개표 상황에 따른 변동성 주의해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원·달러 환율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달러 강세(환율 상승)를, 민주당 해리스 현 부통령 당선 시 달러 약세(환율 하락)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사전투표를 진행한 미국 대선이 5일(현지시간) 본 선거에 돌입했다. 본 선거 직전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위를 점했지만, 앞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섰던 만큼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경합주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90원 수준까지 상승(원화 가치 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년 만에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6억 9000만 달러로 전월 말(4199억 7000만 달러)보다 42억 8000만 달러 줄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락)했지만, 이달 들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약진해 환율은 달러당 137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해리스 당선 시 경제정책의 연속성 및 국제 금리 안정 전망에 따라 추가 약세로, 트럼프 당선 시 고관세·국채 발행량 증가 전망에 따라 추가 강세로 접어들

망이다.

다만 지난 2016년 미 대선과 같은 급격한 환율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달러당 30원 이상 치솟았고, 연말까지 두달에 걸쳐 80원 가까이 상승

한 바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미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고, 대선 이후에야 금리와 환율에 빠르게 반영됐다”며 “이번에는 금리와 환율이 대선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고, 당시와 비교했을 때 환율이 (전망) 80~90% 이상은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당선 시 원·달러 환율 전망치로 달러당 1350원 전후를, 트럼프 당선 시 전망치로 1400원 전후를 제시했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 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고점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며, 해리스 당선 시에는 환율이 1350원 아래로 크게 하락(원화 가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성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이번주 글로벌 외환 시장은 미 대선 결과에 결국 좌우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 밴드는 달러당 1330원에서 143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 대선은 한국시간으로 6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출구조사 결과도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공개되지만, 주별 투표 방법과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어 당선자 확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표 진행에 따라 환율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추가 과세 등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 FOMC 금리인하 속도·폭 ‘안갯속’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기준금리

이민제한 등 정책에 따라 물가 영향 “연준, 정치적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겸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10% 보편관세와 이민제한 정책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트럼프 후보의 압력에 굴복할 지는 미지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낮췄다.

1년 2개월간 머물러 있던 금리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바뀌자 시장의 관심은 인하 속도 즉, 인하 폭에 쏠린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은 오는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8.1%로 반영하고 있다. 물가는 둔화하고 있고, 고용시장 열기가 식어가며 우려했던 실업률 또한 4.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인하 흐름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중국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가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시하며 요동쳤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57.59포인트(0.61%) 하락한 4만1794.60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수입품에 대한 60% 고율관세와 함께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품 가격에 추가된 관세까지 더해지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민제한 정책으로 불법노동자 830만명이 쫓겨날 경우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인건비가 상승, 물가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후보는 수시로 자신은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며 재임 당시에도 금리 인하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둔화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를 되레 상승시킨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온 연준이 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압박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겸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하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온다.

해리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수입품 과세대상을 보다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일부가격에 관세가 더해지는 만큼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민간기금으로 지역투자를 활성화해 이민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자 유입을 서서히 줄이겠다는 것으로 당장 고용시장의 타격은 적지만, 추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연준은 예상되는 정책완화 경로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 비트코인 상승장 유력... 최대 14.5만달러

## 가상자산

두 후보 산업발전 친화적 입장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도 미국의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후보들 모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5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7만35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6만7900달러까지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접전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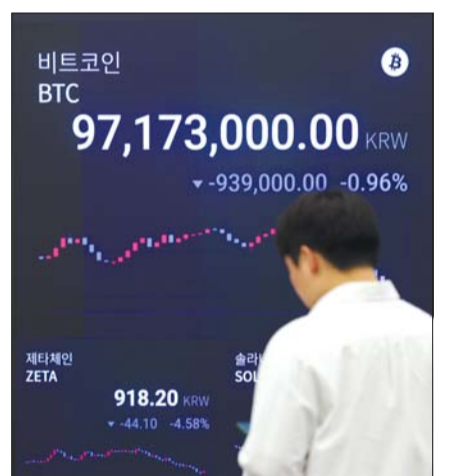
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 칼리지와 함께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7개 경합주에서 7879명의 투표 참여 의사가 분명한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개 주에서 앞서고 2개 주에서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발표한 전국 유권자 여론조사에는 해리스 후보가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6%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NBC의 대선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49%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트럼프 후보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에 트럼프 당선이 베풀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두 후보 모두가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촉진을 약속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도 가상자산 등 혁신 기술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승폭에서는 차이가 날 것이라 분석이다. 트럼프 후보 재선 시 최대 14만5000달러, 해리스 후보 당선 시 최대 8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 없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 재선 성공 시 다음 주 중으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 후보 당선 시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조정을 거친 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